#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29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3. 25(금) 14:02~16:34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박종관 위원장 :** 제32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지난 정기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저와 몇 분의 위원님들이 위원회의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자유롭게 비대면 회의로 참석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위원회 회의실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그리고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그리고 저까지 6인의 위원이 대면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비대면 참석으로는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님께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셨습니다. 그 외 사무처 직원의 경우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직접 보고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대부분 근무지에서 접속한 상태이며, 비대면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곁에서 회의를 보좌해야 할 사무처장직무대행 역시 나주 본청에서 접속을 하였고 위원회 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부장도 격리 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상임감사님과 감사실장도 나주 본청에서 비대면으로 접속 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 사무처 전략개발팀의 박우영 팀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11인이 지금 위원회 회의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3월 2일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인턴직원 신분에 있는 김원, 문주영, 박용준 등 3명의 인턴사원이 위원회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과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모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한 상태라서 제가 회의 구성과 관련된 성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12명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셨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29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전차(前次) 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이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면과 비대면 회의가 섞여 있는 만큼, 회선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잠시 회의를 중단하여 원활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前次) 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26차 전체회의에서는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3건의 수정의결,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27차, 제328차 서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각 1건의 안건 역시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전차(前次)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의사봉 3타)

## 3.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3건의 의결사항과 7건의 보고사항 그리고 1건의 논의사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3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과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안),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 등 3건의 의결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의안번호 제940호 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이 인사이동으로 지역협력부로 옮겨가 있습니다만 이 안건은 양한성 부장이 국제교류부장 업무을 담당하던 중에 진행한 안건이라 양한성 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부장인 김나영 부장도 같이 나주 본관에서 참석하셨네요.

**양한성 지역협력부장 :** 예, 같이 회의에 참여 중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필요할 경우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양한성 지역협력부장 :** 예. 안건번호 제940호 2022년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정시공모 1차에 이어서 시차를 두고 정시공모 2차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자료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48건으로 7개 장르에 대한 접수를 받았고요. 1개의 장르통합심의로 이루어진 남북교류사업까지 548건 지원을 접수 받았고 총 122건에 대한 26억 7,000만 원의 배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해서 배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달간 지원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2월에 심의준비를 거쳐서 3월 초에 2주간에 걸쳐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대상 사업 유형은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등 4개 사업유형에 대해서 각각 분야별로 심의를 했고요. 남북교류사업은 7개 장르 통합심의로 하루에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지원분야는 문학, 시각,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방금 건수만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접수를 해서 장르별로 심의기준에 입각해서 서류심의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심의회의 추진경과 부분입니다. 저희가 각 사업유형별로 각 분야별 5인씩 전담심의위원 형태로 모셨고요. 남북교류지원은 총 7개 분야에서 1인씩 해서 통합심의로 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의 경우 사무처 그리고 해당되는 위원님들과 각 1배수씩 해서 총 2배수로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섭외순위를 선

정 후에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전면 온라인 줌회의로 진행을 하였고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총 122건에 26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하는 세부적인 총괄 내역이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최소보장제 적용대상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심의를 진행하며 관련한 사안들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결이 될 경우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바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 세부내역과 심의총평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미리 안건을 회람하고 위원님들의 사전의견서를 받고자 했으나 사전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부터 58쪽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8쪽에서 13쪽의 개요 그리고 13쪽부터 46쪽까지 세부내역, 47쪽부터 58쪽까지 총평 등을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사실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이런 교류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라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분야별 1인으로 해서 총 7인으로 구성해서 통합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분야를 나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한성 지역협력부장 :** 다른 국제교류사업과 동일하게 문학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구성을 했고요. 장르별로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후보자까지 추가적으로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정숙 위원 :** 문학, 시각,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등 7개 분야에서 1인씩 했다는 거죠?

**양한성 지역협력부장 :** 예.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열 위원 :** 선정률을 보니까 대부분 국제교류지원은 11%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파트는 20~30%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는 시점에 많은 단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신청했을 텐데요. 선정률이 낮은 이유는 전체 금액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한성 지역협력부장 :** 예, 세부 사업유형별로 예산도 삭감된 부분도 영향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국제교류지원 같은 경우는 레지던스 확산지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신청건수가 폭증

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정률은 제한된 예산 대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던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종열 위원 :** 그래서 사실 삭감이 되었을 때 우려를 했는데요.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이번 연도에 국제교류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을 조금은 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삭감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그 상황을 알았고 다음 연도에도 굉장히 폭증할 것 같거든요. 억눌렸던 교류 관련 사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확충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양한성 지역협력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연도 기금운용을 수립하는 일정과 공모시점과 시기적으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내년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말씀하신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억눌림 등을 감안하여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는 되어 있고요. 실제로 다음 달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안을 잡을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정종열 위원님의 의견처럼 코로나에 예술가들이 적응을 하신 상태잖아요. 팬데믹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변종이 나오지만 사람들은 적응이 돼서 자기의 창작계획을 세울 것이고요. 외국에 있는 국제교류사업들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증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요약하자면, 코로나가 만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중심에 있던 사업이 국제교류사업이었고요. 이것이 2022년 올해 폭발적인 증가가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현실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이라든가 화해 등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동질성 회복에 근거한 남북교류사업의 중요도에 따른 강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 드렸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지원사업인 만큼 의결절차로 들어갈까 합니다.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절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비대면으로 접속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모든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941호 2022년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건은 엄민영 미래사업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안건번호 제941호 2022년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안)에 대해서 보고르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60쪽부터 75쪽까지 16쪽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3년 동안 과기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전반에 대한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별도공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의결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새롭게 추구하는 사업은 예술계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기존의 예술-기술 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품 지원에 있어서 예술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찾고 기술 파트너를 직접 선택해서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방식은 그런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와 기술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사전에 공모 선정을 하고 그 형태를 예술가들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구성과 저희 사업화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흐름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 빅데이터의 관계를 봤을 때는 문화예술 분야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예측이 창작과 향유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예술계가 다른 산업 영역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활용하는 정부 정책이 있었고요. 아르코 비전2030과 작년 전략개발팀에서 수립했던 기술 분야 중기전략과 관련하여 예술과 기술의 창작지원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한 전략들이 나왔고요. 그런 전략의 하나로 지원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에 앞서서 예술계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특히 신기술, 제조, 유통 분야들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산업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예술계는 관련 지원사업들이 거의 없어서 데이터를 활용한 별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특별하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문체부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조직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빅데이터에 특화된 사업들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술위원회는 과기부가 3개년 동안 진행했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에서 문화예술 빅데이터센터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기관과 같이 협약을 맺고 기관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켓C라고 하는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에 개방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3개년 간 119개의 기업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서 사업화에 활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서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공모전을 시행하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7개의 공모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에 24개의 기업이 참가하여서 관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벌써 4개의 기업이 새로운 예술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모전을 바탕으로 타 기관의 창업지원을 받는 등 예술문화 관련 빅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작년에 새로운 예산으로 10억을 증액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예술분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범사업 분석 등을 진행하였고 실제 저희 예술분야에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지원된 사례들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3 자료에 담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술기업은 90% 이상이 예술데이터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고요. 예술가의 경우에도 예술데이터를 이용할 의향이 74.3%인데 실제 이용해본 경험은 20%가 안 되었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이유가 60% 이상이 데이터 접근방법 자체를 모르는 것과 20% 이상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학습방법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3개의 사업을 구성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이 기존 공모전 사업을 공모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술 서비스로 성장하도록 단계별 자생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부분이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예술-데이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예술작품의 창작이나 비창작된 작품을 향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바우처 형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10억 중에 4억 정도의 예산을 쓸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예술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술데이터가 사회로 다시 선순환되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진일정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붙임1의 별도공모 계획(안)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는데요. 64쪽의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붙임1은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안)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3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술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술 활동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예술인이 직접 전문기술을 탐색하거나 학습하거나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이 예술위원회가 먼저 검증된 기술 공급 기업들을 채택하고 채택된 기업들을 예술가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패키지 사업모델의 상품을 제시하면 그 상품들 중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예술 형태에 맞는 부분들을 선택하여 공모의 형태로 신청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부분을 선정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같은 경우는 공연부터 시작해서 문학, 기초예술 전 분야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2단계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예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기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선정하고요. 선정된 기업들이 구성한 상품을 예술인들에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해당 상품을 가지고 올해 활동할 예술인과 매칭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총 사업의 규모는 4억 원인데요. 데이터 상품을 1,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등 3종류의 상품으로 구성하고 그 상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65페이지를 보시면 낯선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의 핵심은 예술활동에 필요한 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술인들이 복잡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검증된 부분에 대한 기업들을 예술위원회가 선정하고 선정

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올해 예술 활동과 부합하는 예술인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형태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데이터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데이터 기업과 매칭 할 예술가 단체를 함께 선정함으로써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이 되면 4월부터 데이터기업 공모지원 신청을 시작하여 5월에는 예술인 공모를 진행하고요. 6월에 지원심의 결과가 발표되어 올해 하반기에 예술위와 데이터기업, 예술인 단체가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하 붙임2와 붙임3은 사업에 대한 공모요강이고요. 마지막 붙임에는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역시 이 사안도 위원님들께 미리 회람토록 하여 사전의견서를 제출받고자 하였으나 사전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기업과 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데이터기업은 매칭건수에 따라 1.5억 원까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술인 및 단체는 데이터상품 바우처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데이터기업에서 1.5억까지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기업에 1.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바우처 사용을 그만큼 데이터기업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1.5억으로 예술인들에게 기술 가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기업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1.5억이 필요하다는 것인지가 약간 헷갈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기업은 재하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하청을 할 상황은 없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위와 데이터기업 그리고 예술인 및 단체가 3자 협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서 상호의무규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상호의무규정 중에 꼭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3가지 질의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4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특정 기업에 모든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최대치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의미고요. 저희가 최초 데이터기업에서 지원신청을 받을 때 현재 그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상품과 수량이 몇 건인지를 지원신청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1개 특정 기업에 들어가는 전체값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1억 5,000만 원이 총량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각각 상품이 창작에 대한 부분은 2,000만 원과 2,500만 원짜리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향유 확산에 대한 상품은 1,500만 원과 2,000만 원짜리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이 구성하는 상품군을 예술가들이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창작에 대한 상품군 1종류를 넣었는데 그 1종류가 2,000만 원짜리인 페이셜캡쳐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상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연극단체A, 시각단체B 등 5군데가 이 상품에 대해 사전협약을 맺어서 신청하고 그게 모두 선정된다면 2,000만 원씩 5군데로 해서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의 의미는 1개 기업에게 갈 수 있는 최종금액에 대한 상한선이고요. 그 상한선은 개별 구성한 상품에 대한 총합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홍태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그리고 재하청 금지라는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매칭 사업을 추진하면서 벤치마킹을 한 곳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인데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2019년에 2억 원의 규모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2년에는 사업의 규모가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000여 개의 기업이 데이터에 대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다보니 부정수급이라든지 사업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하청에 대한 금지라는 것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품이 모두 녹아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재하청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술지원 같은 형태는 재하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은 하청의 구조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사례비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청은 금지하는 것을 규정으로 넣었습니다.
세 번째 3자 협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호의무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기업은 당초 제공하기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기한 안에 그리고 협의된 바에 따라서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일체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 제공 기업과 수요 예술단체를 모두 지원할 것과 향후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접수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축적하여서 제공하는 예술인단체와 협의 하에 나중에 수익화 부분을 모색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수익화를 위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자 협약의 주요한 상호의무규정은 기한 내 성실한 업무의 수행과 권리관계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태림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 핵심은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공모안에 포함된 설명 문구를 보다 분명하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의 핵심 내용이 있는 배경 내용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으나 그 내용이 외부로 표출되는 공모안의 설명되는 안이 보다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대안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조금 더 공모 설명 문구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64쪽의 1억 5,000만 원 그리고 재하청 문제와 관련된 70쪽 그리고 67쪽이네요. 그러니까 64쪽, 67쪽, 70쪽의 지적한 내용한 관한 정확한 문구 설명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고요. 부장이 답변한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도록 문구를 바꿔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박경주 위원 :**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65페이지의 추진일정을 보면 기업을 먼저 공모하잖아요.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기술을 먼저 내놓고 작가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으로 될 수도 있어서요. 제안을 하자면 예술인단체를 먼저 공모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모에 선정된 단체들에게 맞는 기술기업을 매칭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66페이지를 보면 기업에 대한 신청대상 설명에 “예술인의 사업목적에 맞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공모를 추진한다면 예술단체나 예술인을 먼저 공모하고 선정된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공모계획에 나와 있는 데이터기업의 신청대상 목적에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67페이지를 보시면 3자간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예술위원회가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전공모가 나갈 때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지원하는 예술단체들이 여기에 선정되었을 때 계약서를 3자간에 쓰게 되고 그 계약 내용 중에는 이후 예술위와 함께 수익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구로 들어가야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논란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담당부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예, 지금 2가지 의견을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나중에 수익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수익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협의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을 공모요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기술을 먼저 선정하고 예술단체를 선정한다면 예술 활동에 맞지 않는 기술에 예술이 맞춰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인데 고민되는 부분이 현재 예술인들이 기술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술을 찾는 형태의 창작지원은 이미 예술가-기술 융합지원 사업에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현재 제공 가능한 데이터와 관련 기술은 이와 같다는 것을 제시해 드리고 그중에서 본인이 계획한 사업목적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연결해 주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설계해서 단계를 바꾼다면 전반적으로 사업의 틀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우처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 활동에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한 예술인들을 찾고 이런 게 공모가 아니라 매칭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획사업 형태라면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으로 먼저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수요를 조사하고 예술에 맞는 데이터기업을 공모하는 형태로 했을 때 선정된 예술인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자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예술인의 수요를 파악하고 데이터기업을 매칭 하는 형태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바뀌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구조 자체를 이런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바꿔서 다시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사업부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데이터나 기술 부분에 대해서 진입을 못하고 있는 예술인들, 궁금증은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는.....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기업이 예술 관련 상품을 내놓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수요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술가들이 지원을 하는 형태로 기획이 된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아까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인을 주체로 생각하고 예술인들의 수요가 먼저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구상하는 것은 지금 예술과 융합,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사업은 데이터나 기술에 대한 진입애로가 있는 예술인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는 지금 이 상태가 오히려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후 수익화와 관련해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미리 대응해서 예술위의 명확한 역할 등을 사전에 집어넣자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3자간의 계약서 내용 중에서 수익화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를 공지에 넣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작가가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매우 명확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공모가 나갈 때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요. 만약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것에 동의하는 분만 공모가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어느 쪽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정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어느 정도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술이 예술에 매칭되었을 때 예술이 먼저가 아니라 기술이 먼저가 되는 게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설계하기 전에 예술가들에게 수요조사가 확실하게 된 것인지? 지금 68페이지에 예시가 있는데 그렇게 수요조사가 돼서 나온 내용인지 아니면 사무처에서 전문가 자문위원을 통해서 검토 후에 나온 예시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위원님의 질의가 유효한데요. 과연 이 사업안을 내기 위해서 어떤 타당성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박 위원님의 질의가 그것입니다. 이 사업안을 올리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합리성을 검토하여 여기까지 왔는지를 물은 것이니까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본 사업이 데이터 판매로 예술인단체에게 수익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참여하신 예술인이 동의하신 경우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사업안이 나왔죠?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그러면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 페이지에 정리를 했는데요. 신규사업 수립 과정으로 예술현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작년 10월 1일부터 13일 동안 조사를 했고요. 예술인 97인과 예술기업 52개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이용경험과 이용목적 그리고 수요도에 대한 의견들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먼저 확인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이후에 국내외 빅데이터에 대한 사례를 작년 11월에 연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작년 11월 데이터기업에 참여 의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기업이 참여 의향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예술인과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하여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럴 경우 본인들이 활동목적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하시겠다는 의견을 확인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장에 개요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향후 수익화와 관련해서 창작 주체가 선택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따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고요. 데이터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축적되고 데이터가 다른 영역에서 필요할 경우 판매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확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공모에 넣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박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공고(안)에 문구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아무리 데이터나 기술 진입장벽을 넘어서는 유형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문예진흥기금이 예술창작에 지원되는 것이니만큼 창작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이 사업 내에서 구현되도록 세세하게 실무진들이 애를 써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원재 위원 :**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데요. 정정숙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창작지원사업이 아니고 서비스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예술중심은 당연히 그동안 천명해 왔던 것이고 이 사업의 핵심은 서비스 개발인데요. 저는 오히려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 기술을 매칭한 것을 바우처로 쓰게 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기업들이 이 예산으로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가 오히려 우려됩니다. 사실 이 사업은 평가지표가 뭐냐면 서비스로 개발해서 실제 예술 서비스로 쓰기로 원하는 곳에 바우처로 쓰게 해 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기업 풀이라고 말하는 풀이 이 예산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예술 중심으로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남아야 되는 건데요. 기업들이 남아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현장 예술가나 예술단체들, 주로 창작 작업보다는 예술 서비스를 제안받을 수 있는 풀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기업들의 풀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 액수가 너무 적고 비현실적이면 오히려 창작 쪽이 아니라 기업들 쪽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이원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 쪽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 후에 추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문을 받았을 때 드렸던 얘기가 “바우처가 이 액수로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예,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한도가 일반적인 구매사업이 1,800만 원이고요. 가공을 한 사업은 4,500만 원이고 AI가 들어가면 7,000만 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해서 저희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기업들이 역시 금액에 대한 부분과 상품 구성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럽겠지만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확산될 경우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고 판단하신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 수요조사 결과는 1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올해 실질적으로 공모했을 때 모두 참여를 할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우처의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데이터산업진흥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억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수요와 효과를 봐서 사업을 건실하게 키울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짧게 추가를 하자면, 이게 어려운 사업이고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알고 있고요. 저는 그 풀이 직접 공모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풀링될 수 있는 인증이나 MOU 등 풀링에 대한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보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냥 선정되면 사업을 하는 식으로 하면 위원회 차원에서는 축적이 안 될 것 같아서 풀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문화정보원 등의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쪽에서도 이것은 의미 있는 사업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체부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중기재정에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산업진흥원의 1,000여 개 정도의 군에 사업이 공고될 경우 홍보를 같이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조를 구했고요. 향후 단순 참여자를 떠나서 예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업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답변이 되셨나요?

**이원재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나 기술의 진입장벽을 넘어서는 유형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더 큰 틀로 볼 때 문예진흥사업은 어느 경우라도 창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큰 원칙으로 견지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64쪽, 67쪽, 70쪽 그리고 향후 수익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문구를 공고안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세세한 대안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을 수정하여 공고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거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반대가 없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셔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942호 2022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황진수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77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2022년 아르코 공공예

술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는 미리 보내드렸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2022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은 지난 11월 제319차 전체회의에서 공모계획을 의결해 주셨고요. 올해 1월까지 공고해서 지원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과 3월에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에 1차 서류심의를 마쳤고요. 3월 18일에 2차 심의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서 상정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2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쟁률도 치열해서 13대 1정도였고요. 그중에서 양식을 미준수하거나 자격이 부족한 5건을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총 신청건수는 346건이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를 통해서 전담심의위원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주셨고요. 일단 사무처와 위원님 중 4인이 특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5인씩 추천해서 후보군을 2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실에서 입회하여 난수표로 무작위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섭외순서를 정했고요. 섭외순서에 따르고 전화 섭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섭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섭외가 완료된 심의위원 5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계획, 전수검토제에 대한 설명, 공정심의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와 외압금지법 등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5인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심의가 있었고요. 1차 심의에서 지속활용형, 연구지원형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실행형과 주제심화형 중 2차 대상을 각각 12건, 5건을 선정했고요.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3월 8일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고 개별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8일 예술가의 집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PT와 인터뷰를 건당 20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율실행형 단년도 사업 1건과 2개년 사업 7건, 주제심화형 3건으로 해서 총 11건을 선정했고요. 사업예산은 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후속적으로 오늘 의결이 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공지를 하고 그 이후에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OT와 기본적인 사항을 진행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사안 역시 사전의견서를 받도록 회람하였으나 사전의견서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으로부터 이 사안은 지원사업 의결이니만큼 속히 진행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의욕을 갖고 시작한 사업인데 신청대비 지원률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고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을 보니까 내용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을 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의결절차로 들어갈까 합니다.

**정정숙 위원 :** 저 같은 경우 제가 전주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하고 퇴임한 지가 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심의에 전주문화재단이 들어와 있고 2차에서도 예비 쪽으로 주제심화형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심의위원은 아닙니다. 심의위원이었으면 당연히 회피를 했겠고요. 지금 의결사항에서도 회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사무처에서 규정 등을 검토하셔서 회피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제 스스로 회피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정정숙 위원님께서 전임 전주문화재단의 대표이사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사무처장은 해석을 해 주시죠.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전임 대표인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에 회피를 하셔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군요. 정정숙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회피고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척이 될 텐데요. 제척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동의를 하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정숙 위원 의결절차 기피)**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의결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숙 위원님을 제척하고 나머지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위원장님,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요. 심사평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확하게 짚어 주세요.

**전고필 위원 :** 8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나 설명 등이 조금 더 심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따로 사업설명회를 갖거나 다른 형식의 과정 등을 통해서 공모하는 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황진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사실 저희가 심의할 때부터 지역에 대한 고려는 많이 했고요. 이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고루 진행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의결할 때 지역균형제로 해서 30%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런 부분을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히 전했고요. 지역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30% 이상은 선정해 달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27건 중에서 9건이 선정돼서 33.3% 지원은 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고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미술 포털에 전년도와 재작년도 선정된 사업들의 사업계획서를 공고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사업들이 공공예술로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규정을 아주 명쾌하게 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만 그런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고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예, 고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문구를 위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제안서의 상당수가 ‘공공예술’과는 다소 무관한 축제형 사업, 문화기획 사업, 생활문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정기발표회 사업 등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제안서의 상당수가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 사업을 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정숙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그 내용이라면 저희가 그 내용대로 의미를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제가 심의위원을 추천할 때도 별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지원 선정이 되신 분들 중에 문학과 연결된 분들이 계신가요? 왜냐하면 시각이나 공연 쪽으로는 공공예술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학의 입장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폭이 좁은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요. 그런 분야가 선정된 것이 있나요?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심의위원 풀 속에는 다양한 장르의 위원님들이 추천되었고요. 난수표로 돌리다보니까 특정 장르가 들어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장르의 사업들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도에 제주도의 ‘문학책방’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쟁이 치열했고 “문학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하게 장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이 되셨지요?

**박경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의결절차로 들어갈까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먼저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분 역시 손을 들거나 말씀으로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없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당초 저희가 회의자료를 보내드리면서 2022년도 민간공연장 활성화 지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유형 공모추진 계획(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번 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고 실무를 재빠르게 진행하여 4월 간담회 혹은 서면의결을 통해서라도 속히 보고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사항을 모두 소화했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보 고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7개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7개의 보고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고 오늘 보고사항은 정책혁신 소위원회를 포함한 소위원회 개최 결과와 다원예술TF 회의 결과를 포함한 청년예술TF 개최 결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개최 결과 등 소위원회와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가 6건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관련된 자문회의 결과보고 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혁신 소위원회를 포함한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정책혁신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 그리고 예술의 현재성 등 3개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7차 회의에서는 각 워킹그룹별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그 내용에 따른 정책과제 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고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제안 검토과정에서 특히 예술의 현재성 연구 쪽에서 제안한 오픈트랙에 대한 세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92페이지 하단부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정시공모 트랙을 깨고 수시지원의 길을 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논의된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의 계획은 4월 13일 오후 2시 정도에 비대면으로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공론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보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4월 13일에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공론화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4월 중에 보고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발행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40차, 41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역시 정책혁신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40차, 제41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40차 회의 내용이 41차에 거의 그대로 다뤄져서 41차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기관의 홈페이지 현장소통 정책제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위원회 활동 정리를 위한 백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제안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드릴 사항으로는 최근 문예지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단체가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지원부가 참여해서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 문학지원부에서 향후에 아르코창작기금 발표지원 원고료 지원에 대한 제출편수 기준 분량에 대한 자문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희 현장소통 홈페이지 정책제안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1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시스템은 게시물에 대해서 사무처나 소위원회에서 개입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관리자 권한이 거의 없고 게시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안들 내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근거가 없는 비방 등의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감안한 향후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지난주에 홍태림 소위원장님과 시스템 업체의 미팅을 가졌고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이후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도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서 제작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별로 현재 작업 영역을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고 5월 소위원회 임기 종료에 맞춰서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소위원장님께 추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홍태림 위원 :**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제9차, 제10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부장으로 보고 받고 위원장의 추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9차, 제10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대, 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론과 이후 정책제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안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진희 위원님께서 공유를 해 주셨고요. 향후 성희롱·성폭력 관련 현장의 사례나 실제 해결방법 경청 그리고 신규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지역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전주,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해당 간담회를 추진했고요. 저희 참여인원을 빼고 20명의 외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규정안은 현재 확정안이 아닌 관계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행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결과나 규정 관련 내용은 이진희 위원님

이 별도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속 활동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관계자 미팅과 연구결과 및 규정안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3월 24일 어제 문체부 정책과 관계자분과 만났고 이진희 위원님, 홍태림 위원님, 이산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연구 내용에 대한 결론과 규정안 마련에 대한 공론화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대략 일정은 4월 22일 정도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진희 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보태주시죠.

**이진희 위원 :** 예, 첨언하겠습니다. 4월 22일에 토론회를 준비 중인 내용이 성희롱·성폭력 규정 관련한 것과 2030여성예술인 불평등 연구에 대한 것인데요.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예술계나 지원사업 안에서 하위 의제가 아니라 예술계 전반의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 불평등·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핵심적인 주제인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가는 토론회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이때 공공이 성평등 문제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성차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효과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함께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마무리를 해서 오늘 오전에 급하게 자료들을 정리하여 회람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과 토론회 기획(안) 등이 오늘 회의자료에 별첨으로 같이 첨부되었지만 회의자료에 붙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간담회에서는 핵심적으로 규정의 공식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규정에서 조사권에 대한 부분과 가해자 제재조치가 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긴밀하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현장의 사례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이나 예술위 보다도 이미 기존에 규정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침 수준에 있는 협약서나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의 중요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오전에 첨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난 화요일은 전주 지역 토론회, 수요일은 부산 토론회를 마치고 어제는 문체부의 예술인권리보장법 간담회에 참석 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상근에 준하는 활동을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개 소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차, 제10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부장이 먼저 보고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 의견을 TF팀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결과입니다. 제9차 블랙리스트 회의 결과는 페이지 12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은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자 사업 피해자 소통방안 그리고 내부 직원 소통방안, 아르코혁신 23개 과제 중에 TF에서 주관하고 있는 4개 과제에 대한 진행 논의가 있었습니다. 외부 피해자 소통은 백서에 기반한 주요 6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1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외부 피해자 소통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3월 중순에 극장장이나 미술관장 외에 5인의 본부장들과 함께 만남의 자리를 비대면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야 할 대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각 위원별로 사업을 나눠서 피해자 대상 목록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소통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의 자발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사전 기반 마련에 집중하자는 말씀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지금 4대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탁 지정교부사업 정리와 안정적 재원 확보, 심의제도 혁신, 예술의 가치 확산, 문체부와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등이 있는데요. 단순 수탁 부분은 크게 쟁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정리하기로 했고요. 안정재원 과제는 문체부에서 현재 안정재원 관련 TF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TF 구성 결과를 보면서 필요한 경우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제도는 기존에 이원재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으로 계신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타 예술의 가치 확산에 대해서는 담당이신 정정숙 위원님께서 검토 중이시고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 일부 저희 부서나 후원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담인력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자 소통 활동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업무규모와 진행사항을 파악할 때까지는 정책혁신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10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일정상 오늘 결과보고가 서면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두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소통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 창작산실 건에 대해서 내부 사업관계자와 피해자 간에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고 모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피해자 간담회는 논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정숙 위원님께서 활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별 간담회의 경우에는 바로 추진하기 보다는 8기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향후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자문회의로 모실 분들은 관련 사업별 관계자. 저희가 대상화를 하고 있는 관계자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은 추후 별도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TF팀장님께서 보충하시죠.

**정정숙 위원 :** 예, 정책혁신부의 부장님이 블랙TF에서는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금 4개의 과제 중에 2개는 어느 정도 저희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금과 관련된 것은 문체부의 움직임과 같이 간다는 것이고요. 심의제도는 이미 지원총괄부에 내용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 된다고 해서 그 2개의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목해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술가치 확산과 관련해서는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원과 우리도 했습니다만, 예술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또는 정부 부처의 고위직이나 국회 등의 인식수준 또는 그 인식의 내용에 대한 조사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실시되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문화예술후원센터 쪽에 연구와 관련된 제안을 했고요. 21일에 발령되어 이제 일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와의 수평적인 관계도 저희가 깊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소통과 관련된 얘기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추렸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소통하는 것은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회의를 철저히 하고 다음 기회에 권유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사건들에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사전 준비회의를 4월 중순 이전에 3차 사전 준비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양자의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본다. 그리고 양쪽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양쪽 당사자 중에 한 분이라도 원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강제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4차, 제5차 다원예술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지원총괄부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다원예술 TF 4차와 5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23일에 4차, 3월 16일에 5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차수 위주가 아닌 주요 논의안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회의에서 논의가 된 안건은 크게 3가지 안건이고요. 후속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예술인 심리상담 추진안 그리고 다원예술과 관련된 연구용역 추진 그리고 라운드테이블과 포럼을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 4차, 5차 회의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수요조사(안)을 5차에서 확정했고요. 조만간 수요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자체 연구과제로 다원예술 관련 과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부분은 TF의 위원님들께서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에 명시된 포럼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럼의 전 단계로 라운드테이블을 하기로 하였고요. 4차와 5차에 걸쳐서 각 라운드테이블의 주제 그리고 질문내용과 참여자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TF 회의 이후에도 라운드테이블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 31일 목요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5차에 걸쳐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포럼은 4월 28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TF팀장님께서 강조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경주 위원 :** 워낙 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덧붙일 말은 없고요. 블랙 TF에서 소통하시는 부분 중에 다원예술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TF와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정정숙 위원 :** 박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대표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통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다원창작 같은 경우 11명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을 어떻게 선별해서 다 만날 것인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전 준비회의로 모든 사건들을 통털어서 5인 정도 선정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기 때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문제는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한 문장 정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다원예술은 장르 지원자체가 사라졌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피해자도 있지만 간접적인 피해자가 더 많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단체별로나 개인별로 결이 굉장히 달라서 굉장히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연이어서 제10차, 제11차 청년예술TF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오늘 예술인력양성부에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제11차 청년예술TF의 주요 내용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나 2월 전체회의 때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월 전체회의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래예술 제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언문을 계속 보완해서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마 4월 1일 정도에는 완성된 제언문이 나올 것 같고요. 미래예술 제언은 블랙리스트라든지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의 상황을 거치면서 이런 국면 앞에서 어떤 전화기를 맞이한 예술현장의 상황이 있는데 예술현장이 이 상황에서 미래에 어떤 가치들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단초 성격이고요. 완벽하게 완성되고 깊이 있는 내용이 담긴 제언이라고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단초로서 제시한 제언이고요. 이 제언문은 올해 진행될 (가칭)청년참여예산제와 연동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언문에서 명시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사업유형 같은 부분으로 특화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면 조금 더 변별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연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언문이 그냥 문서로만 나오면 확산이 잘 안되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판단을 해서 제언문과 연결된 영상물을 만드는 작업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제언문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여러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을 인터뷰해서 영상물로 풀어낼 예정이고요.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또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공유를 드리면서 이 결과물들이 유의미하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후 여러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예술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미래예술캠프 사업을 2023년에 추진하기 위하여 4월 중에 이에 대한 보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한 번 공유해 드리고 의견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년의 충분한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관련 자문회의도 진행한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보고안건을 통해서 제가 간략히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관련한 청년TF가 중심이 되었던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TF가 주관한 여성과 청년의 충분한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예진흥법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가 지난 3월 7일 진행되었는데요. 자문위원으로는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과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날 의견으로 나온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만약 문예진흥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여성 참여 관련 부분에서는 양성평등법을 준용해서 문예진흥법에서도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100분의 30으로 현재 명시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상에서는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에 맞출 필요는 있고, 아니면 100분의 40이라는 표현보다는 특정 성별이 60% 이상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추천위원회 단계뿐만 아니라 위원 선임 전 과정에 이런 부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소대표를 넘어서 미대표되었던 청년의 경우에는 가령 예술활동 증명 데이터가..... 예술인활동증명제도가 데이터 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명제도 현황을 보면 20·30예술인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제도 접근성이 높으니까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치를 조정해 본다면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별도의 청년위원 비율을 제시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청년의 예술위 참여와 관련해서는 별도 비율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 위원 자격에서 10년 이상 예술계 관련 활동이 필요하다. 그에 준하는 기준이 제시된 상황인데요.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실 실효성이 없어서 차라리 이것을 덜어내며 자연스럽게 청년예술인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자문회의 이후로는 지금 현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국회 문체위 단위에 청년다방2040 같은 의원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 연구단체와 조율이 된다면 4월 중에도 후속 공론장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아마 이런 공론장이 혹시라도 열릴 수 있다면 위원회가 바뀌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공론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위원 선임 전반에 관련된 내용도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개로 하나만 덧붙여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위원 선임제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원회 위원 자격과 관련된 규정 개정도 청년예술TF가 다룰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기존 규정을 보면 기존 규정이 예전에 만들어지고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봐서 소위원회 위원 자격에서도 특정성별이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면 가능한 60%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정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을 준용한다면 35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준용한다면 35세 이하의 소위원이 위촉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해서 추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TF 안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TF에서 조만간 방향을 잡아서 정책혁신부와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보고 4월 말에 내부규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도 일

정부분 개선하는 성과를 내봤으면 하는 생각을 공유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희 위원 :** 그러면 법 개정(안)에 대한 준비도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죠?

**홍태림 위원 :** 법 개정(안)을 바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할 때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차원의 논의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 내부 규정에서 소위원회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 만들어지고 별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최근에 예술현장 단위나 예술지원기구 단위에서 개선된 측면을 일부 보완해서 나가는 것은 남은 시간 안에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래 TF의 과제이기도 해도 그 정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논의의 내용 중에 법 개정의 방향이나 개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잘 알겠고요. 다만, 뭔가 개정의 방향이나 법에 대한 개정의 방향이 정리되고 제시된다면 성소위에서 고민하는 바가 있어서 같이 엮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정도 제안해 주시면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3개의 TF의 6번의 회의와 1번의 자문회의 결과를 모두 보고 받으셨는데요. 혹시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이진희 위원님이나 박경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소위원회나 TF 범위를 넘어서서 연합해서 활동하고 함께 결과를 내는 전례들이 만들어질 싹은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통합적인 설계 등이 추후 활동에서도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6개의 소위원회 TF 개최 결과보고를 모두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6개의 소위원회 TF 회의 개최 결과와 1개의 자문회의 결과 보고를 포함해서 7개의 보고사항을 모두 접수 받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해서 보고사항까지 모두 소화를 했고요. 2022년도 4월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 5. 논 의 사 항

**이진희 위원 :** 기타 안건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희 위원 :** 저희 예술위 보조사업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안)과 관련해서 긴 시간동안 수차례 안건화 되기는 했는데요. 전반의 진행상황, 1년 반 동안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제가 10분 이내로 소개를 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드는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릴 테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규정을 잘 만들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제안하는 것은 별도의 간담회 시간을 잡아서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논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진희 위원 :** 별도 간담회 시간을 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본 회의에서 제안을 받고 충분한 논의는 간담회 때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진희 위원 :** 그러면 오늘은 회의를 종료하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아니요. 회의 이후에 간담회를 충분히 하면 되는 것이죠. 2시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진희 위원 :** 그래도 10분 정도.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본 회의에서 제안은 일단 먼저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진희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이진희 위원님께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에 관한 위원 논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폐회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일단 말씀드리고 방식은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의 목표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체부에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의무화가 2021년 1월 5일에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시면 공공지원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마지막 목표를 보시면 2020년에 O작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조사업 선정 취소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이 과정이 공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물론 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만 공식 절차가 부재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찌 보면 절차나

형식에 있어서 무리가 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절차를 충분히 갖춰서 예술위 실무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예술위에서도 추진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고충처리 제정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O작가 사건 이후 예술위의 대응 약속에서 보면 핵심적인 것이 사법절차에만 의지하지 않고 가해자 징계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겠다. 수사 및 기소가 없어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예술위에서 인권영향평가서를 냈는데요. 예술위에는 '인권경영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권경영규정이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준안을 배포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대상은 사실 모든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가 기본적인 목표고요. 인권영향평가서 결과 분석에서 전략체계를 보시면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그러니까 추진방향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를 해 놨는데요.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과정과 상당히 연계되는 형식적인 목표를 갖추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의 목표로 제가 두 번째 동그라미를 해 놨는데요. "인권침해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법 제도 내부규정 이행환경 분석"이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위 내부에서도 성희롱·성폭력 규정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나 토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위가 그동안 잘 해온 것이죠. 토대를 잘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공모사업에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권보호나 차별의 원칙들을 공모사업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삼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상담 창구와 가해자 제재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공모사업 운영방향 안내사항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위가 차근차근 제도화에 대한 내용이나 근거들을 축적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움직임들, 예술위 내부의 움직임들을 촉진한 것이 현재까지 TF와 성평등 소위원회의 활동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들은 그냥 참조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달라는 것은 조사권에 대한 것이 최근의 쟁점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쟁점으로 떠올랐었는데 "1년 반 동안 쟁점이었는데 대안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행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쟁점이 되는 조사권에 대해서 TF와 성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F가 마련한 안과 사무처가 마련한 안에서 3가지 정도가 누락되었어요. 그러니까 TF(안)에서 누락된 것이 3가지인데요. 나머지 2가지는 조사권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질문을 주시면 언급하겠고요. 조사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실 조사라는 게 예술위에서 만약 규정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는 수사와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피해자에게 청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서 피해와 가해의 맥락을 성인지 관점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성희롱 사건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사건의 실체를 성평등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해의 행위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조사의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술현장에서 도제식 문화가 어떻게 해당 성희롱 사건에 위력

으로 작동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예술현장의 도제식 구조나 성차별적인 권력 관계를 모르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찰 조사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갖추지 않으면요. 그래서 성인지 관점으로 사건의 가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이것을 판단할 것인가가 조사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조사권에 대한 명시와 행사가 왜 기관장의 책무이면서 동시에 권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법적 근거를 따지자면 저희가 타고 올라가면 헌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관장이 법적 의무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죠. 기관장의 법적 의무와 권한 중에 하나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보조사업 안에서는 보조사업을 지원 받고 있고 지원받은 보조사업 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의 예술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업무관련성의 의미를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기업에서의 계약관계,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업무관련성을 저희가 긴밀하게, 또 중대하게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관장의 책무와 권한, 예술위는 위원장님이시겠죠. 그래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업무와 담당자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권한 행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이 사무처, 그러니까 실무자들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조사하는 권한을 잘 명시함으로써 예술위 내부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했느냐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질문하는 내용이고 행정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투는 문제는, 이것이 성희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를 어떻게 적법하게 이행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행정 소송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방어력이 더 떨어지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대 인권센터 판단에 대한 사례인데요.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에 대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판례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근거로써 해석할 수 있다. 무게감이 동일하다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판례가 그만큼 중요한 근거가 되니까 그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표준안에 대한 것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있을 때 살펴보시고요. 왼쪽이 TF의 안이고 오른쪽이 사무처의 안인데요. 왼쪽에 TF 안을 먼저 보시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상담원에게 사건을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2가지의 갈래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행위자 단체에 “이런 조치를 해라.” 그리고 “조치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라.”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해결이 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지금 TF 안의 핵심은 왼쪽의 기준대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단체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권고하는 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컨설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었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단체의 대표이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상담원이 조사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의 직원이 조사하는 게 행정적 부담으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고충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무처의 안은 3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데 조사결과 보고요청 이후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공백입니다. 두 번째는

문체부에 이관을 시키는 것인데요. 문체부에 이관시킬 때 어떤 절차와 행정적 고리를 가지고 이관시킬 것인지가 부재합니다. 그리고 어제 문체부 회의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 고리는 예술위가 만들어야 된다는..... 명확하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가해자를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와 근거를 어떻게 만들지는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근거나 절차, 기준이 없이 그냥 가해자를 조치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 소송에 있어서 방어권이 약해집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과 의지가 변화해야 된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정신 승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성평등과 성폭력 대응에 대한 추세들을 이해하면서 규정에 대한 논의를 예술위가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피해자한테 힘이 되고 싶고 성평등을 위해서 예술위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계속 논리가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조사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규정에 명시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다면 “1년 반 동안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마련이 되었는가?” 없었다는 것이죠. 피해자지원 예산규모 얼마나 할 것인지가 없었고 안정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충상담원을 적어도 3인 체계 이상을 제안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예술위 부설 성평등센터를 아예 위탁 주는 것도 행정적으로 편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공백입니다. 이것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후에 문체부가 가해자 조치를 담당할 것이라고 얘기가 계속해서 되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와 협조체계가 논의된 바가 없어요. 어제 성소위가 요구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문체부의 가해자 제재 체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것과 문체부가 이관해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이 구체성은 없는데 규정에서는 조사권을 무조건 빼자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돌림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는 이겁니다.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 성평등한 예술현장을 구축하는 데 예술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 우리의 탄탄한 기조라면 3가지 방향을 진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적 근거와 원칙이 수립되고요. 피해자 보호조치는 가해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가해자 제재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사무처 실무자의 보호를 위해서 근거와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조치들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아래의 방향들로 전체적인 체계를 탄탄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간담회에서 해답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예술위가 온다고 해서 기대를 하셔서 지역에서 10명씩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하루 만에 섭외가 되었는데요. 주신 의견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표준계약서처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어야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긴장감이 생길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 가면 여기에 가라고 하고 여성단체에 연락하면 예술계의 특징을 모른다고 해서 피해자가 자꾸 공회전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앞장선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산문화재단의 사례인데요. 재단의 지침에 조치사항이라는 규정하고 협약서를 쓴 내용을 가지고 절차들을 계속 만들면서 제재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지역입니다. 교육청에서 성폭력 가해자 고발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 소송 관련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규정에 따

라서 절차를 이행했는가를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행정 소송에 대한 부분도 방어를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주옥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문체부와 관련해서 역할을 이렇게 나누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문체부에 요구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효성 있게 문체부가 보조사업 안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지원기관과 관련된 것과 예술위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협업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조사와 제재조치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가 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 안에서 시정명령 등으로 제재 조치를 하라고 문체부의 시정명령이 있을 때 협조체계 그리고 보조사업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예술위로 다시 한번 조사와 확인에 대한 협조요청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사실 예술위가 조사나 이런 부분의 체계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규정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소위원회 TF 활동 보고 때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되어서 어떤 구조적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한국 예술계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해 왔던 점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위원회 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할 내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안을 잘 접수하였고요.

**이진희 위원 :**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이라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종관 위원장 :** 질의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고요. 없으시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회의 종료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를 해 주시면 이진희 위원님의 제안을 잘 받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29차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아무도 질문이 없으시면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의결안을 오늘 올려주시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토론을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이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반영되어서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위원님들도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조사권의 문제가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페이퍼로 정확하게 제출되고 제가 조문비교표와 수정안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문서적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사무처에서는 누가 보셨는지? 의견이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1년 넘도록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저는 이 논의를 포함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서 종료 후에 별도의 간담회를 깊이 있게 논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제329차 회의의 모든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그리고 논의안건을 모두 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회의종료)**